상상국어 임팩트 원

# 상상 이승모 상승선 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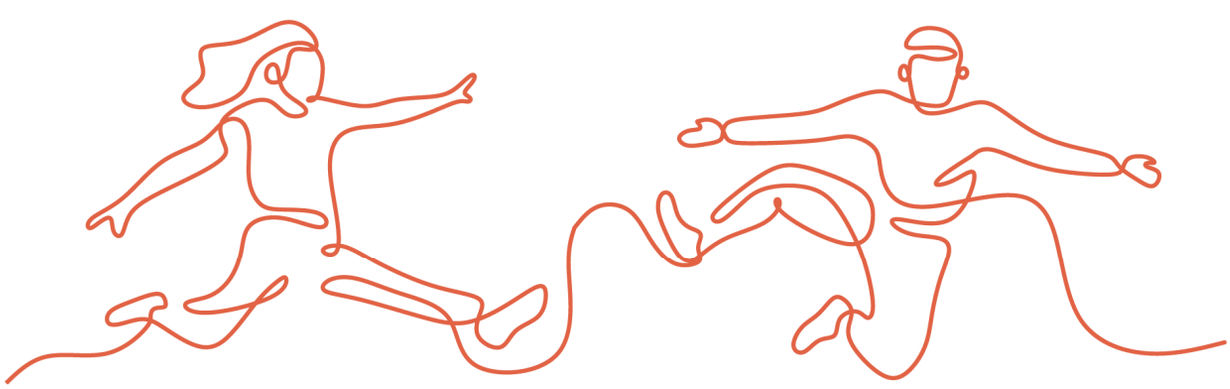
5-6

상상국어 임팩트 원

# 상상 이승모택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6

上昇線

# 상승선

상모택
이



# 5-6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 시즌 5 제6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이형기, 겨울의 죽음, 최창대, 진질설



##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10월입니다. 마음에 기복이 커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수능 국어는 결국 마지막 세트 풀 때 몇 분 남아있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세트에 몇 분 남았는지를 보면, 지금까지의 궤적을 짐작할 수 있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쫓기다가 끝나게 되지요. 일년 간의 수능 공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겠지만, 결국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차분히 흘러가는가가 일년을 결정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매일 하던 걸 꾸준히 하면서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필복합입니다. 사실 오늘은 24번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세트를 선정했습니다. '24번'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게 9월 모평 '잘 익은 사과', '공작관문고 자서'가 결합된 26번 문제와 유형이 똑같습니다. 즉 9평의 신박한 유형을 반영해서 파이널에 바로 문제로 만들어 준 거죠. 적어도 상상 모의고사가 정말 성실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심지어 당시 26번 문제는 문제는 잘냈는데, 답이 너무 쉬워서 아쉬웠는데, 이번 상상 24번 문제는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9평에 나온 유형을 사설로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요. 암튼 상상 훌륭합니다!!!~~(잘 봐주세요.)~~

(가)는 연계니까 바로 털고 (나)는 완벽한 낯선 현대시지만 차분히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시는 아닙니다. 바로 가시죠. 〈보기〉 읽고 들어가면, '자연의 질서를 훼손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시'랍니다.

**(가)**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가들, 즉 평가원이 사랑하는 작가들의 시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이육사, 김수영, 조지훈, 유치환, 박목월, 박두진 등등 사실 상징성이 강한 작가들이라... 한용운 시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수능에 필요한 맥락만 말씀드릴게요. 쇠잔한 눈 뒤에 봄기운이 옵니다. 그리고 봄의 향기는 사실 쇠잔한 눈이 주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소멸 → 생성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옅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웁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단풍 역시 지난 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겁니다. 즉 자연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일경초*가 장륙금신*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조(小鳥)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아무래도 '불교'를 수행하는 스님이시다보니, 시에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걸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다는 표현입니다. 즉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 본 거죠. '성찰'입니다. 지금 화자는 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인식합니다. 역설적 인식이죠. 주제겠지요. 쉽게 말해 님을 떠난, 즉 고통의 가시덤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

* 일경초 : 한해살이풀.
* 장륙금신 : 높이가 일 장 육척인 불상.
* 만유 :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나) 작품 갑니다. 낯선 현대시면서, 산문시입니다. 그냥 차분히 읽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나)**
고도성장 시대의 이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겨울도 살찐 부자가 되어 여유가 만만하다. 매일같이 사우나탕에 가서 땀을 빼고 오는 주름살 하나 없는 팽팽한 얼굴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다. 이제 그는 추위를 모른다. 추위란 여자들의 밍크코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조명장치의 불빛일 뿐이다. 개구리도 올챙이를 모르거늘 하물며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옛날 겨울, 배고픈 그 말라깽이를 알까 보냐. 초가집 처마 끝에 진종일 꽁꽁 언 고드름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기 일쑤였던 그 녀석, 때로는 동사 사고를 일으켰지만 절대로 썩지는 않는 온몸이 시퍼런 뼈였던 그 녀석은 죽어 버린 것이다. 중앙 집중식 난방에 전기난로까지 곁들인 이 따뜻함 속에서야 제 놈이 죽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추위를 모르는 살찐 겨울, 짠맛을 잃은 소금이 설탕으로 둔갑해서 집집마다 단맛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지하의 쓰레기장이 이 겨울에도 푹푹 썩고 있는 것이다.

**차분히 읽으면, 바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을 보세요. 겨울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을 돌리고, 전기난로를 곁들이면 당연히 따뜻해지죠.~~(난방비 개비싼데...)~~ 그걸 화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보기〉에서도 보셨지만, 결국 자연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그 표현이 정확히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지하의 쓰레기장이 이 겨울에도 푹푹 썩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죠? 원래 겨울은 추워서 쓰레기장의 쓰레기들이 썩으면 안 되는데, 따뜻하니까 썩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죠. 중요한 부분이라 25번 5번 선지에서도 답 선지로 이걸 물어봐 줬고요.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현실은, 자연으로 따지면 뿌리가 썩은 현실과 같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형기, 「겨울의 죽음」 -

(다) 수필도 바로 끝내고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읽기 전에 까먹지 맙시다. 이 수필은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질병과 편안함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 시입니다. 물론 어떤 인식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읽으면서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

바야흐로 내가 병들었을 때는 질병에 대한 근심을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계를 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목(耳目)과 정욕에 감응하고, 기거와 음식을 절제함에 있어서도 오직 소홀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치 맨발로 봄 얼음 위를 건너듯 조심조심하고, 약한 성채에서 사나운 적을 막는 것처럼 굳게 지킨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질병이 떠나가서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날마다 태연하고 기운이 매일 펴지면 앞서 조심조심 굳게 지키던 것이 나날이 해이해져서 점점 제멋대로 굴게 된다. 천천히 혼자 돌이켜 보면 대개 훌륭한 것은 늘 질병 속에 있었고, 좋지 않은 것은 언제나 아프지 않을 때 있었다.

**이제 이렇게 통념을 비트는 것은 익숙할 때도 됐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절제하고 조심하고, 오히려 병이 나으면 해이해진다는 거죠. 즉 질병 속에 오히려 훌륭한 게 있었고, 오히려 질병이 없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인 인식이죠.**

대저 한 사람의 마음은 천만 사람의 마음과 다를 게 없다. 비굴하며 곤액을 당해 궁한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병통으로 여기는 것이고, 부귀하며 현달하여 영화로운 것은 사람들이 늘 편안해하는 바이다. 내가 이에 비로소 사람의 훌륭한 점은 몹시 병통으로 여기는 바에 많이 있고, 좋지 못한 점은 대단히 편안한 곳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확장합니다. 궁한 것 = 병통 / 부귀 영화 = 편안.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결국 궁한 것에서 훌륭한 것이 나오고, 부귀 영화같은 편안한 곳에서 좋지 못한 게 나온다는 겁니다.**

**(중략)**

그의 예술이 스스로를 꾸미기에 충분하고, 언론이 자신을 수식하기에 넉넉하며, 명예가 스스로 무게를 잡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들은 사람들이 사모함이 넓어질수록 자기에게 가려짐이 더욱 심해진다. 저들은 의기양양해서 스스로 뜻을 제멋대로 하고 몸을 사치스럽게 할 만한지라, 뽐내고 거만한 마음이 학식과 더불어 자라나고, 사납게 이기려는 기운이 혈기를 따라 함께 강해진다. 그래서 나날이 자라나는 것이라고는 성정을 좀먹고 마음이 골수까지 병드는 것이 아님이 없다. 하지만 또 점점 젖어 들어 습관이 되고 보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학식이 넓고 우아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겨 마침내 도덕을 저버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 고명한 사람마저도 예외가 없어서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네요. 이미 모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살짝 억까 같기는 한데...)~~ 결국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일수록 도덕을 저버리고,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고명한 사람도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그저 편안한 것에 빠져서 돌이킴을 알지 못하는 잘못 때문이다. 공자께서 "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주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면 형세와 지위에서 병이 든 자는 오히려 고쳐서 없앨 수가 있지만, 마음 씀씀이에 병이 든 자는 의화(醫和)와 편작(扁鵲)마저 멀리서 대문만 바라보고도 달아나게 될까 걱정스럽다. 이 같은 병통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어찌 통렬하게 스스로를 깎아 내고 폐와 장을 말끔히 씻어 내어 조금

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경』에서 "약을 먹었는데 명현*하지 않다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음미할 만한 말이다.
나와 상보는 모두 평소에 허약해서 실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 병을 삼가는 방법에도 반드시 나와 같은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몹시 편안한 처지로 지내니 마음 씀씀이에 깊은 병이 들었을까 봐 염려스럽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에게 경계로 줄 만한 것을 고하니 이를 써서 스스로를 경계하기 바란다.

**늘 뒤로 갈수록 잘 읽어야 합니다. 주제가 나옵니다. 결국 고명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편안함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즉 편안함에 빠지면 병들게 되니, 이런 병통을 다스리려면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약도 명현 현상이 있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네요. 네. 스스로도, 사람들도 경계하자고 합니다.**

- 최창대, 「진질설」 -

* 명현 :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함.

## 22.

솔직히 이 정도는 손가락 걸어도 됩니다. 답이 1인 것이 너무 선명하죠. 다만 공부하는 측면에서 나머지 선지까지 따져는 보겠습니다.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음성 상징어 있습니다. '꽁꽁' 이런 거 있죠. 단 화자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③ (다)는 인용의 방식을 통해 ~~글쓴이가 지닌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인용의 방식 있습니다. 단 궁금증을 드러내는 건 아니었죠.

**④ (가), (나)는 모두 호명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시상 전환 보자마자 맥락으로 컷입니다. 적어도 (나) 시는 시상 전환 자체가 없습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 경외감 컷입니다. (나) 작품 비판하는 건데 대상에 대한 경외란 존재할 수 없죠.

## 23.

㉠은 여름이 소멸하면 가을 단풍이 생성된다는 것이고 ㉡은 겨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소거하면 쉬워요. 1번 선지. 아쉬움은 아닐 거고요. 2번 선지. 인간이 야기한 문제겠죠. 해결을 촉구하는 진술도 아니고요. 4번 선지. 과대평가에서 바로 지워버리면 될 거고, 5번 선지 재회하고 싶은 심정 지워버리면 됩니다. 답은 3입니다.

## 24.

이 문제 설명하려고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의도부터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까지 한번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발화를 열심히 읽습니다.

> 최창대는 (다)에서 '질병'과 '편안함'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의 ㉮~㉲와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인식과 태도를 연결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적 인식'입니다. 그 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중요하겠네요.

> • ㉮ : 모든 꽃에 죽음을 가져오는 '쇠잔한 눈'이 알 수 없는 '향기'를 주는 상황
> • ㉯ : '파리한 바위' 사이에서 '실컷 붉은 단풍'이 곱게 물든 상황
> • ㉰ :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거울'에 빗대어 '인생을 비춰' 봄으로써 삶을 성찰하는 상황
> • ㉱ : 화자가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의 가시덤불'에 놓이고자 하는 상황
> • ㉲ : 화자가 '님을 떠난' 뒤 '행복'하다고 여기는 상황

(가) 시의 상황들입니다. 선지 다섯 개를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는 (다)에서 '질병' 속에 '대개 훌륭한 것'이 들어 있다는 글쓴이의 역설적 인식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죽음을 가져오는 쇠잔한 눈이 봄을 생성, 내지는 향기를 줌 = 역설적 인식.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리면 조심하고 절제하게 되므로 오히려 훌륭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 = 역설적 인식. 상통합니다.

-

**② ㉯는 (다)에서 '비굴하며 곤액을 당해 궁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 출제의 의도는 알겠으나, 저는 최초 판단 시,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 대응 관계라고 한다면, 비굴하며 곤액을 당해 궁한 처지에 있어도 긍정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음 = 파리한 바위에서 붉은 단풍이 물든 상황. 이렇게 대응만 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궁한 처지에서 오히려 긍정적 가치를 발현 = 역설적 인식. 그런데 파리한 바위에서 붉은 단풍이 드는 상황은, 저는 역설적 인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 대응 관계로 해결한다면 맞다고 볼 수 있겠고, 출제하신 분의 의도도 짐작이 되나, 이 문제를 출제하는 중심축은 역설적 인식이기에, 조금 아쉬운 선지로 저는 보입니다. 사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되, 그래도 2번 선지를 답으로 고르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③ ㉰는 (다)에서 '천천히 혼자 돌이켜 보'는 내적 성찰을 바탕으로 시련과 안락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려는 글쓴이의 태도에 대응해요.**

- 사실 수필을 잘 읽었다면, 바로 끝날 선지입니다. 수필에서는 시련과 안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련은 긍정적인 것들을 불러올 때가 많고, 안락은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을 보인다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는 게 이 수필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보자마자 바로 답 선택하면 됩니다.

**④ ㉱는 (다)에서 내면의 병을 다스리고자 '통렬하게 스스로를 깎아 내'며 쓰디쓴 약을 감내하려는 글쓴이의 주체적인 태도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 현재 시의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즉 고통의 가시덤불이죠. 그걸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설적,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사라지면 생성되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수필에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고통이 있어야 병통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인식, 쉽게 말해 고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별이나 고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지요.

**⑤ ㉮는 (다)에서 '편안한 처지'로 지낼수록 '마음 씀씀이에 깊은 병'이 들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 님과의 이별이 있으면 행복이 온다. 역설적 인식. 편안한 처지에 있으면 병이 든다. 역설적 인식.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방향이 반대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역설적 인식이라는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 25.

답의 선명도. 시의 맥락으로 바로 답을 쳐낼 수 있습니다.

**⑤ '쓰레기장'이 '뿌리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와 '나무'를 대응시키는 유추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위적 공간 이면에 자연의 질서가 남아 있음을 암시하는군.**

- 일단 시로 돌아갑니다. 차분하게 의미 단위를 정독합니다.

>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는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지하의 쓰레기장이 이 겨울에도 푹푹 썩고 있는 것이다.

-

나무로 치면 뿌리가 썩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자연의 질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겠지요. 사실 겨울이면 쓰레기가 얼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따뜻해서 썩고 있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 26.

선지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③ ㉡: '푹푹 썩'는 현상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여 '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저는 이 선지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겨울에도' 쓰레기장이 썩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 틀릴 것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이곳을 구체화하여 이곳의 특성으로 특정하는 건데, 사실 이 시는 현대 문명, 사회가 자연의 질서를 훼손한 상황을 보여주는 시니까, 굳이 국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하긴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고를 했다면 일단 보류하고 넘어 갑시다.

**④ ㉣: '얼음'이 녹기 쉬운 조건을 전제함으로써 안일하게 생활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 하지만 이 선지가 너무 선명하죠.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27.

소거하다보면 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다만 어디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헤맬 수는 있겠네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경우, 돌아가지 않고 지문 내용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① '천만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세태가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 이 수필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세태 비판은 아니지요.

**② '기운이 혈기를 따라 함께 강해'질 때 ~~비로소 '자기에게 가려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 선지는 사실 지문을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냥 실전에서는 넘겼습니다만, 확인합시다.

> 그의 예술이 스스로를 꾸미기에 충분하고, 언론이 자신을 수식하기에 넉넉하며, 명예가 스스로 무게를 잡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들은 사람들이 사모함이 넓어질수록 자기에게 가려짐이 더욱 심해진다. 저들은 의기양양해서 스스로 뜻을 제멋대로 하고 몸을 사치스럽게 할 만한지라, 뽐내고 거만한 마음이 학식과 더불어 자라나고, 사납게 이기려는 기운이 혈기를 따라 함께 강해진다.

-

쉽게 말해 둘이 같은 겁니다.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운이 혈기를 따라 강해질 때 자기에게 가려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③ '고명한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요순의 도'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명한 사람마저도 예외가 없어서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고 했으니,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의화와 편작'의 치료를 받기 위해 '형세와 지위'를 내세우는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그렇다면 형세와 지위에서 병이 든 자는 오히려 고쳐서 없앨 수가 있지만, 마음 씀씀이에 병이 든 자는 의화(醫和)와 편작(扁鵲)마저 멀리서 대문만 바라보고도 달아나게 될까 걱정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은 뒤에 오히려 '명현'이 나타나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 네. 역설적 인식이죠. 약을 먹고 명현 현상이 있어야, 병통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

上昇線

# 상승선

상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